

보행의 철학…나는 걷는다 고로 사유한다

걷기의 인문학

리베카 솔닛 지음, 김정아 옮김



고층건물, 카페, 상가 등 오늘의 도시 거리는 복잡하다. 도시의 산책자에게 도시는 미지의 가능성을 즐길 수 있는 곳이면

서 한편으로는 범죄, 위생 등 다양한 위험이 상존하는 공간이기도 하다. 그러나 도시를 걷는다는 것은 공적 공간을 자유롭게 거닐며 영감을 창조적으로 활용한다는 의미다.

그러나 현대인들은 도시를 마음놓고 걸을 수 없다. 도시의 교외화와 복잡한 공간은 일상에서 걷기를 점점 몰아내고 있다. 걷기의 위기는 곧 공간의 위기가 아닐로그의 위기인 셈이다.

사실 근래의 걷기는 인문학적 주제로 인식된다. 걷기와 인문학에는 모종의 상관관계가 있다는 뜻이다. ‘걸으면서 사유하고, 걸으면서 창조하고, 걸으면서 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예술평론가이자 작가인 리베카 솔닛은 ‘걷기의 인문학’에서 이에 대해 설득력 있는 근거를 제시한다. 사실 걷기는 생산 지향적인 문화와는 거리가 먼 행위로, 사람들은 걷기 자체를 목표로 생각한다. 인문학의 특징도 걷기와 별반 다르지 않다. 당장은 눈앞에 효과가 없지만 먼 장래에는 의미있는 변화를 견인한다.

저자는 보편적인 행위인 걷기를 철학적이고 창조적인 관점으로 들여다본다. 걷는 사람들의 모임, 공간, 역사를 매개



걷기는 가장 보편적이고 철학적인 행위이자, 한편으로 정치적 의미를 발신하는 행위이다. 사진은 로버트 스미스슨의 ‘ 나선형의 방파제’.

로 걷기와 관련된 내용이 다채롭게 펼쳐진다.

걷기와 사유의 밀접한 관계를 설명하기 위해 철학자들을 소환한다. 보통은 그리스 철학자들을 호출하지만 저자는 루소를 비롯한 동시대인들에 초점을 맞춘다. 물론 그리스인들이 많이 걸은 것은 사실이고, 소요학과 스토아학파의 이름이 걷기와 관련돼 있다는 점도 인정한다.

그러나 본격적으로 철학적 사유를 걷기와 연결한 이는 루소다. ‘집중 철학자, 철학적 작가’ 루소로 불리는 것은 걸으면서 사유하고 저작을 구성했기 때문이다.

저자는 또한 걷기로서의 순례 의미 또한 조명한다. 치마요 성지 순례를 했던 경험과 ‘평화 순례자’로 알려져 있는 반전 활동가의 글과 삶도 담아낸다.

“순례는 스포츠가 아니다. 순례자들이 종종 고행을 자초하는 것도 스포츠와 다른 점이지만, 순례의 목적이 많은 경우 치유라는 것도 스포츠와 다른 점이다. 스포츠에서는 준비를 최대한 면밀히 하는 반면에, 순례에서는 준비를 최대한 허술하게 한다.”

무엇보다 책의 미덕은 공간화된 역사를 신화화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영국식 정원이 ‘자연주의’를 최신 트렌드로 받

아들이면서 사유지였던 정원이나 산책로가 공적인 공원이 되었다는 점이 이를 방증한다.

저자는 “정신과 육체, 내면의 성찰과 사회의 결성, 사적인 것과 공적인 것, 도시와 시골, 개인과 집단. 이 양쪽은 대립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며 “대립하는 듯한 두 항이 이 책에서는 보행을 통해 하나로 연결”된다고 한다. 그러면서 “걸어가는 사람이 바늘이고 걸어가는 길이 실이라면, 걷는 일은 찢어진 곳을 꿰매는 바느질”이라고 설명한다.

〈반비·1만9500원〉

/박성천기자 skypark@kwangju.co.kr

입문자를 위한 클래식…거장 28명 삶과 작품

내가 사랑한 클래식

홍사중 지음

세상의 모든 시간을 견디고 살아남은 것이 예술이다.

클래식 음악도 수백 년의 세월을 뛰어넘어 때로는 행복과 불행, 때로는 기쁨과 슬픔의 소리로 우리를 위로해준다. 인간의 근원이 바뀌지 않는 것처럼 음악의 본질도 변하지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클래식 음악은 어려워서 아무리 들어도 잘 모르겠다는 사람들이 많



다. 그렇다고 해서 음악 공부를 하지 않은 사람은 결코 들을 수 없다는 뜻은 아니다. 쉬운 것부터 접근하면 누구나 클래식 음

악을 즐길 수 있다. 관련 지식을 챙기고 자주 들으면 조금씩 클래식 음악의 오묘한 세계로 빠져들 수 있을 것이다.

중앙일간지 논설고문을 지낸 바 있는 홍사중씨가 펴낸 ‘내가 사랑한 클래식’

은 일반인을 위해 쉽게 쓴 음악 안내서다. 저자는 어린 시절부터 축음기로 클래식 음악의 소품을 듣다가 내공이 쌓이면서 클래식 음악 매니아가 됐다.

클래식 음악의 위대한 작곡가들은 대부분 빼어난 연주자이기도 했다. 스스로 작곡하고 연주하면서 당대의 음악계를 주도한 예술가들이었다. 그래서 그들의 일생이 비극적인 것이건 찬란한 것이건 모두 클래식 음악의 역사를 이루고 있다.

어떤 작품은 작곡가의 인생에 중요한 분수령을 이루었고, 어떤 작품은 세상을 바꾸어놓기도 했다. 그렇게 작곡가의 삶

은 음악이 되고, 그 음악은 다시 세상과 우리들의 삶 속으로 들어온다. 이것이 바로 음악이다.

이 책은 클래식 음악의 본산이라고 할 수 있는 그레고리오 성가부터 시작해, ‘음악의 아버지’ 바흐와 ‘음악의 어머니’ 헨델은 물론 공간주의자였던 쇼스타코비치까지 모두 28명의 음악가의 생애와 대표적인 작품을 다루고 있다. 그리고 지은이의 추천곡과 감상평을 차례로 담았다.

파트론에게 머리를 숙이지 않고 자신만의 길을 고독하게 걸었던 베토벤, 당시의 슈퍼스타로 음악계를 휩쓸었던 리스트와 쇼팽의 드라마틱한 생애와 작품 세계가 요즘 일처럼 환히 보인다.

〈이다미디어·1만5000원〉

/전은재기자 ej621@kwangju.co.kr

새로 나온 책

▲어느 노과학자의 마지막 강의=20여년간 3000명의 후학에게 지혜로운 할아버지가 되어준 노과학자의 편지. 세계적인 물리학자 프리먼 다이슨의 값진 마지막 강의를 담은 책이다. 이 책은 그의 소탈하고 인간적인 면을 강조하고, 그가 어떻게 오클라호마 대학생들에게 지혜로운 할아버지 같은 멘토가 될 수 있었는지 보여준다. 세계에 대한 어떤 철학과 자기 견해를 가지는가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려줄 뿐만 아니라 솔직하고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과학 강의를 직접 만나볼 수 있다.

〈생각의길·2만2000원〉

▲잠에 취한 미술사=인간의 삶에서 잠이 차지하는 중요성만큼이나 예술에서도 잠은 빈번하게 표현돼왔다. 신화, 종교, 문학, 예술 등에서 잠에 대한 이야기는 지속적으로 다루어졌는데, 이 책에서 저자는 미술사에서 자주 등장하는 잠과 관련된 서양의 미술작품들을 집중적으로 소개한다. 또, 고대부터 현대까지 이어진 잠과 관련된 작품들을 신화, 꿈, 일상이라는 세 가지 주제로 분류해 살펴본다.

〈미술문화·1만6000원〉

▲나치의 아이들=절대 악을 저지른 나치 전범들도 누군가의 아버지였다. 인류 역사상 최악의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 특정 인종을 어른, 아이 가릴 것 없이 절멸시키고자 했던 피도 눈물도 없는 희대의 악마 같은 나치 전범들에게도 가족이 있고 자식이 있었다. 이 책은 전쟁 중에는 특권



층의 자식으로 부유한 생활을 누리다가 전쟁이 끝난 후 전범의 자식이 되어 생활이 180도 달라진 나치의 아이들의 삶의 변화를 추적한다. 〈갈라파고스·1만7500원〉

▲검은 기쁨=철학교수 출신으로,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읽히는 프랑스 작가 중 한 사람인 슈미트의 세 번째 소설집. 소설 속 인물들은 자신이 내린 결정으로 끝을 알 수 없는 심연에 빠져들어 가지만 그 안에서 희망은 미약하나마 두근거리고 있다. 슈미트는 좌절하고 절망한 이들의 수호신인 ‘리타 성녀’를 통해 개성 있는 네 편의 이야기들을 드라마틱한 한 권의 책으로 묶었다. 책 말미에는 한겨레문학상 수상작가 한은형의 발문을 실었다.

〈열림원·1만3000원〉

어린이·청소년 책

▲한밤중에 찾아온 우편배달부=저학년동화 시리즈 ‘울렁이 문고’ 22번째 작품. 동화작가이자 아동문학평론가로도 활동하고 있는 조태봉 작가의 두 번째 동화집이다. 동화의 속성인 환상성을 적절히 구사해 동화의 미학을 구현하고 있으며, 조순가정의 아이, 장애를 가진 아이, 학업에 지친 아이들을 등장시켜 아이들의 마음을 따뜻한 시선으로 위로하고 있다. 세상을 바라보는 따뜻하고 긍정적인 시선을 느끼고, 현실의 난관을 이겨낼 수 있는 자존감을 키울 수 있는 동화집이다.

〈청개구리·1만원〉

▲몰라요, 그냥=초등학교 교사이자 동화작가로 활동하는 박상기의 첫 동화다. 잘 알지도 못하면서 자주 혼내기만 하는 어른들 때문에 억울하고 속상한 어린이의 모습을 사실적으로 담았다. 주인공이 어른들 모르는 곳에서 스스로 결정하고 실수를 만회하며 정서적으로 독립해 가는 과정을 실감나게 그린 작품으로, 야단을 맞더라도 가벼운 마음으로 흘출 상처를 털고 일어나



는 모습이 밝고 건강한 기운을 선사한다.

〈창비·9000원〉

▲내 동생은 명망!=동생 말고 강아지가 있으면 좋겠다고 바라던 민지에게 정말로 ‘강아지 동생’이 나타나면서 벌어지는 소동을 그린 그림책이다. 발랄한 상상으로 현실 속에서 귀여운 판타지를 펼친다. 미운 동생을 의젓하게 돌봐야 하는 민지의 갈등을 유쾌한 분위기로 풀어내 동생에 대한 사랑을 깨닫게 한다. 어린 동생 때문에 고난을 겪는 만이들이라면 쉽게 공감하며 읽을 수 있다.

〈창비·1만2000원〉

투자가치 높은 물건, 자신있게 추천합니다. 문의 H. 010-3605-5000

삼각동, 토지

- 광주 북구 삼각동 147-4, 11, 15번지 - 313평 209, 209-1번지 - 203평
- 31사단, 삼일아파트 지나서 옆마음
- 도시지역, 제1종 일반주거지역
- 아파트 예정 후보지 1순위 지역
- 단기간 투자 최고지역
- 매매 - 평당 200만원 (조정가)

리조트 / 무인텔

- 전남 화순군 도곡면 천암리 748 도곡 관광온천지구 내, 숙박시설
- 대지 2980평, 건물 1055평
- 3개동, 객실 52개, 각 호실 개별등기
- 감정가/시세 70억, 매매 42억
- 온천지구 내 (주) 바리오 화순'에 650억 투자 예정 (2018년 2월 착공)

다도면, 임야

- 나주시 다도면 판촌리 산191-17 한전(KPS) 연수원 인근
- 임야 1423평, 보전관리지역
- 혁신도시 15분, 남평에서 10분
- 모든업종 개발가능
- 호수를 품은 최고의 전망
- 매매 - 평당 70만원

광양, 근린상가

- 광양시 중동 1888-1번지 락희호텔 근처
- 6층중 4층, 210평
- 2012년 신축, 분할매매가능
- 모든업종 오픈 가능
- 시세/감정가 - 12억 5천만원
- 매매 - 7억 8000만원